

仁
1076
3



三網行實目錄

烈女

伯姬逮火

女宗知禮

殖妻哭夫

宋女不改

節女代死

高行割鼻

穆姜撫子

禮宗罵卓

貞義刎死

媛姜解桔

令女截耳

李氏感燕

崔氏見射

淑英斷髮

魏氏斬指

李氏負骸



셔님이니
 도얏싸가
 바의블나
 미솔오뒤
 쇼셔호대
 지비도리
 큰디아니
 리디아니
 어미롤기
 더니호어
 느몰왔더
 느솔오뒤
 쇼셔호대
 인의도리
 시니바데
 린거시니
 사로미올
 곱만근디

三網行實烈女圖

伯姬逮火宋



趙氏縊輿

李氏縊獄

貞婦清風

明秀具棺

童氏皮面

朱氏懼辱

甯女貞節

崔氏奮罵

林氏斷足

金氏同窆

徐氏罵死

雍氏同死

梁氏被殺

義婦卧冰

王氏經死

翠哥就烹

彌妻啖草

烈婦入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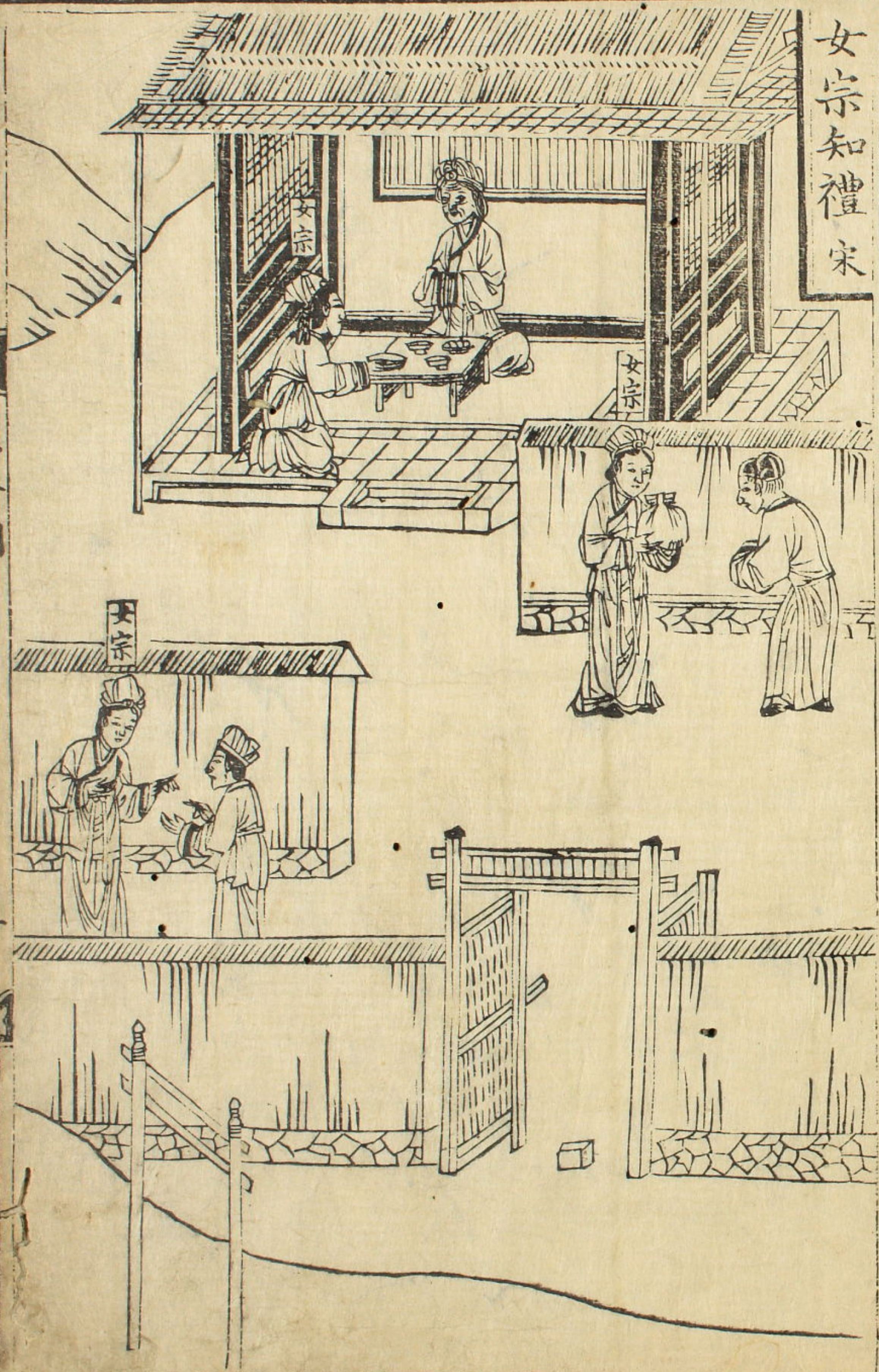
金氏撲席

伯姬魯宣公之女嫁於宋恭公。公卒。嘗遇夜失火。左右曰。夫人少避火。伯姬曰。婦人之義。保傅不俱。夜不下堂。待保傅來也。保母至矣。傅母未至也。左右又曰。夫人少避火。伯姬曰。婦人之義。傅母不至。夜不可下堂。越義而生。不如守義而死。遂逮於火而死。

詩 宮中失火正熈熈。煙燄連天半夜時。左右緞言宜少避。夫人豈肯婦儀虧。共姬守禮任捐軀。婦道堅貞孰與儔。聖筆特書賢節義。聲名煥赫至今留。

거집어려
시어마님
효도하며
지니게안
게자보것
지니누의
르니사랑
스므라그
녀종이닐
자바드면
남지니죽
만누니질
빠웃밍글
핑그라시
호모로정
초모로순
허남진의
물사리

女宗知禮宋



正열 들이
 경태부노
 내남지니
 아니올흐
 잇내티미잇
 티미업스
 매새음호
 호며도주
 릿업스며
 호호미다그
 시너누의노
 호도로혀나
 호과다호
 바리오호고
 호심호야심
 르시고재
 고일호물
 라

女宗。鮑蘇之妻。蘇仕衛三年而娶外妻。女宗養姑愈敬。因
 往來者。請問其夫。賂遺外妻甚厚。女宗如謂曰。可以去矣。
 女宗曰。何故。妯曰。夫人既有兩好。子何留乎。女宗曰。婦人
 一醮不改。夫死不嫁。執麻紵。治絲蠶。織紵組紃。以供衣服。
 澈漠酒醴。羞饋食。以事舅姑。以專一為貞。以善從為順。豈
 以專夫室之愛為善哉。禮天子十二。諸侯九。卿大夫三。士
 二。吾夫士也。有二不亦宜乎。且婦人有七見去。夫無一去。
 義。七去之道。妯正為首。淫僻。竊盜。長舌。驕侮。無子。惡病。皆
 在其後。吾妯不教以居室之禮。而反欲使吾為見棄之行。
 將安所用。事姑愈謹。宋公聞之。表其閭。號曰女宗。
詩 君子當年娶外妻。恩情雖隔豈含悽。養姑不懈誠彌
 切。千古芳名孰與齊。閨門嫉妬是常情。賂遺還能出
 至誠。稱號女宗非溢美。開陳婦禮甚分明。

틸지그그
 그니라장
 괴랑식의
 사롬브러
 닐오디랑
 그미엇디
 잇고랑식
 티댄내어
 니니외해
 리로송이
 슬위두르
 후에야가
 지비저식
 디업디니
 성미티서
 사르미아
 고닐오뒤
 지븐모로



殖妻哭夫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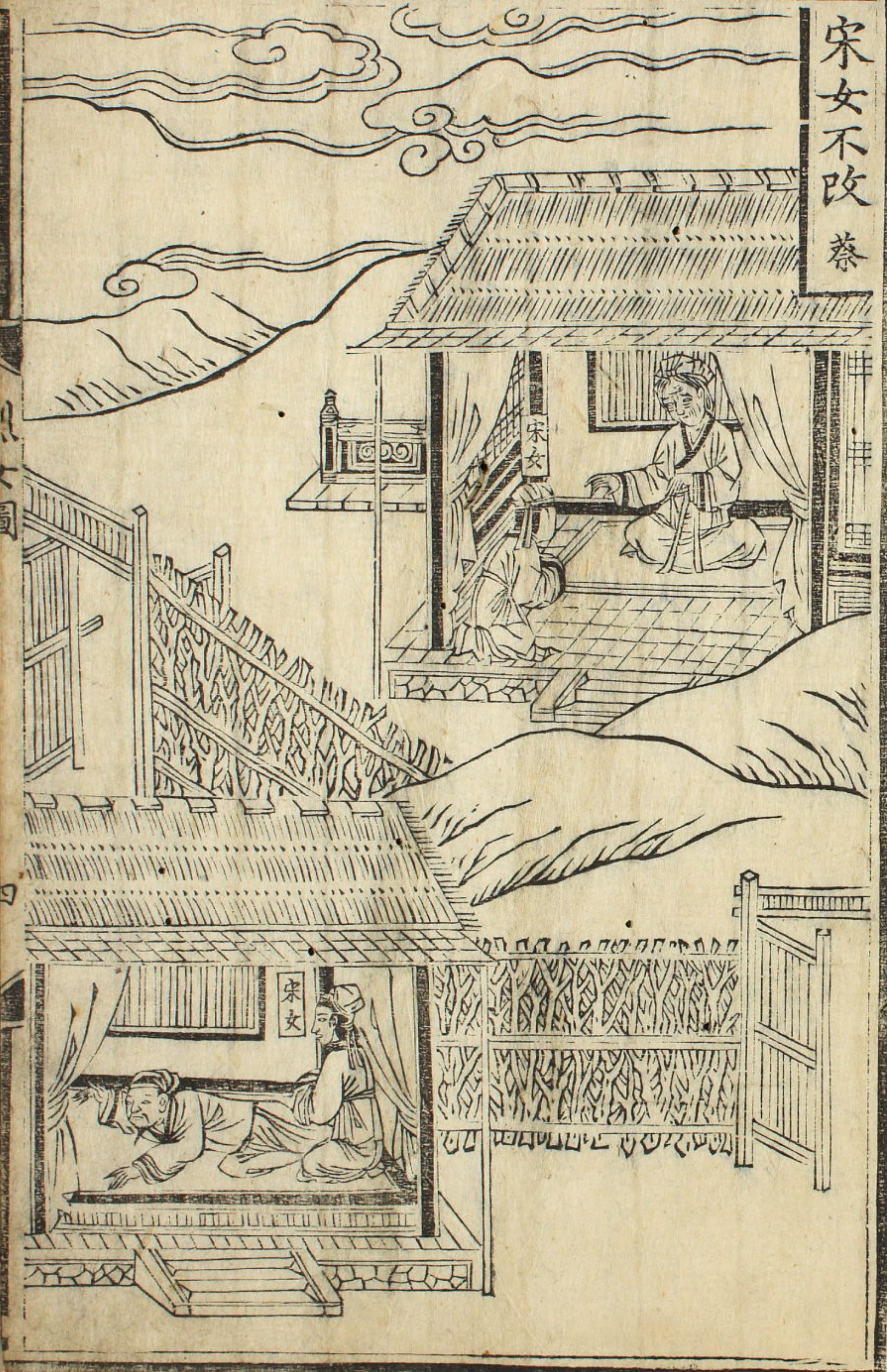
니아비이
 고고남지
 계의지호
 아드리개
 내우호로
 대는남진
 석업스니
 정성나들
 지호야절
 주글서로미
 주그니라

齊莊公襲莒。杞梁殖戰而死。莊公歸。遇其妻。使使者吊之於路。杞梁妻曰。今殖有罪。君何辱命焉。若令殖免於罪。則賤妾有先人之敝廬在。下妾不得與郊吊。於是莊公乃還車。詣其室。成禮然後去。杞梁之妻無子。內外皆無五屬之親。既無所歸。乃枕其夫之屍於城下而哭。內誠動人。道路過者莫不為之揮涕。既葬。曰。吾何歸矣。夫婦人必有所倚者。父在則倚父。夫在則倚夫。子在則倚子。今吾上則無父。中則無夫。下則無子。內無所依。以見吾誠。外無所倚。以見吾節。吾豈能更二哉。亦死而已。遂赴淄水而死。

詩 良人不返。寂堪哀。郊吊焉能偶。受迴城下枕屍終善哭。國人揮涕豈徒哉。依歸何所見。吾誠更二無心愛。此生遂赴淄流輕一死。至今嗚咽帶愁聲。

리남진호
 영을어더
 영유러거
 들형호미
 데브리링
 자바드면
 니하느니
 올만날생
 고마디아
 리잇고호
 니하니라

宋女不改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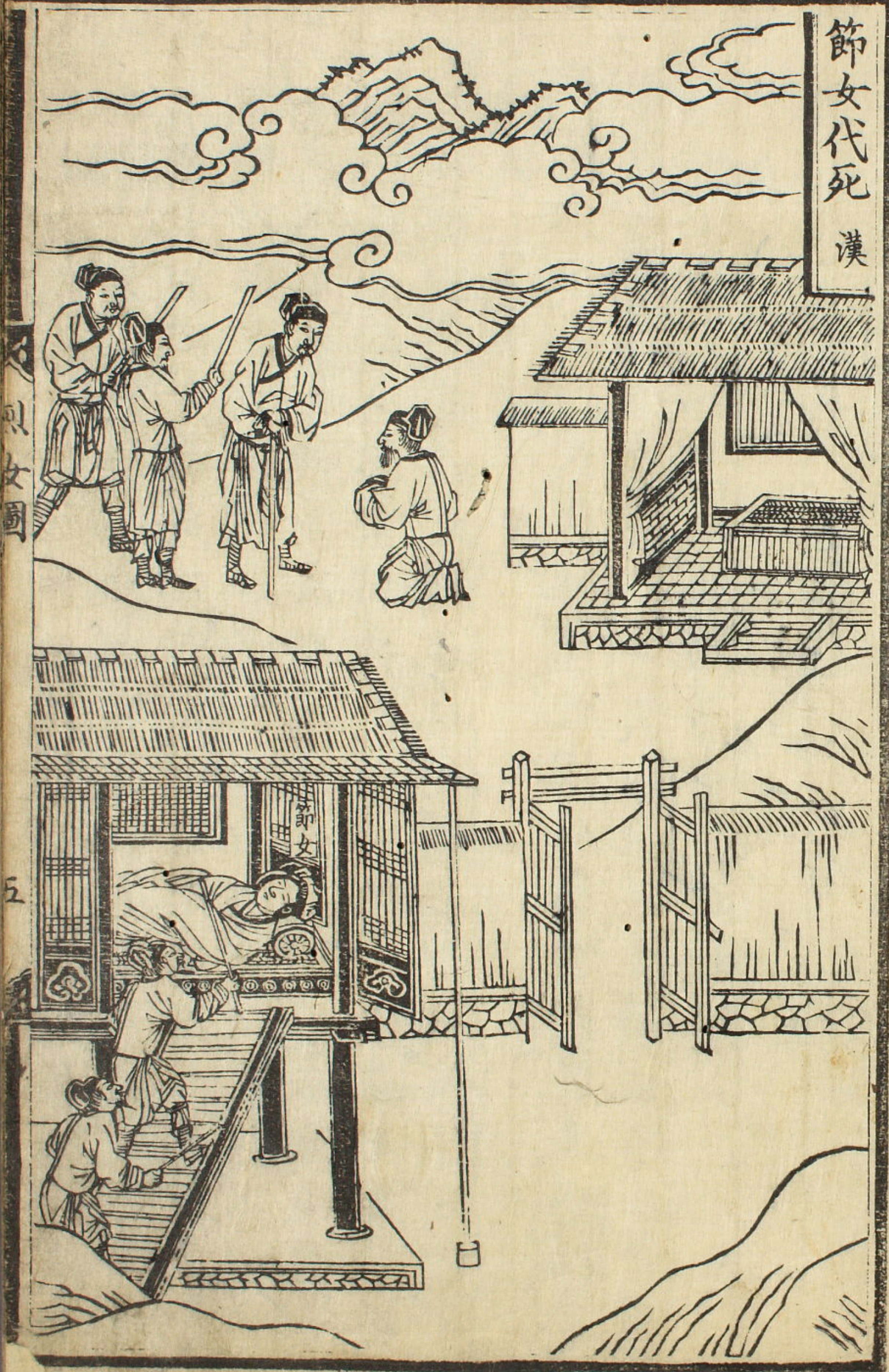


宋女

宋女

쉬절녀의
 들야재
 아비제사
 네너교되
 비주글거
 니주그리
 오다하야
 아닐오되
 고동년
 내집여
 고지비
 니문뒤누
 마누웠
 오미와머
 큰보고슬
 디아니

節女代死 漢



烈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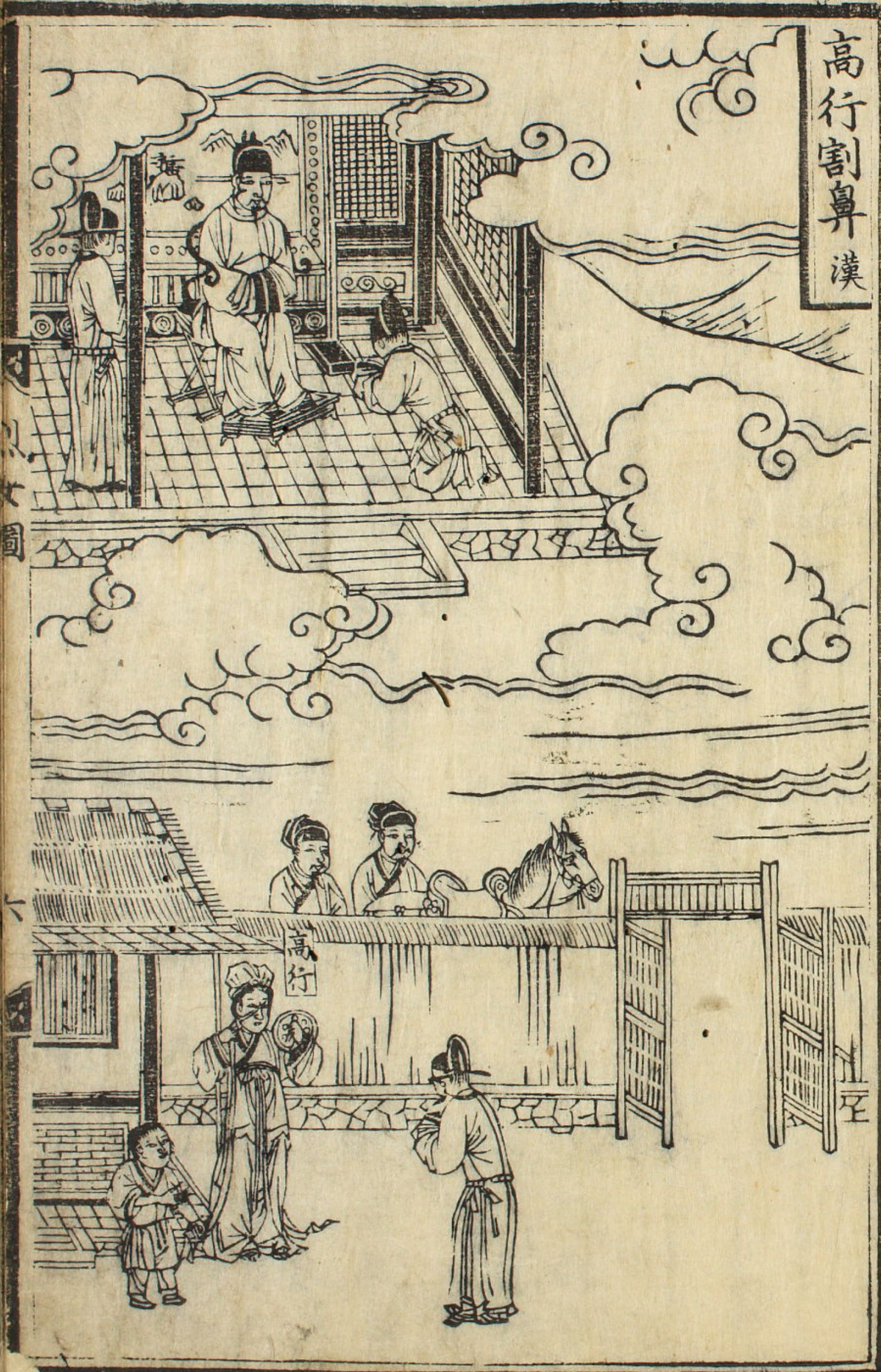
五

蔡人妻。宋人之女也。既嫁而夫有惡疾。其母將改嫁之。女曰。夫之不幸。乃妾之不幸也。柰何去之。適人之道。一與之醮。終身不改。不幸遇惡疾。彼無大故。又不遣妾。何以得去。終不聽。

東楚綢繆夜向深。三星燦燦彼蒼臨。良人不幸令罹疾。天只如何欲奪心。翻雲覆雨是人情。况乃慈親計已成。一醮獨能終不改。青編萬古有高名。

고이니어
 돈토와어
 이더니랑
 르서로고
 비법순호
 니하야당
 니니주그
 언신이하
 고천하니
 디오의를
 면사르미
 두루보며
 니내하마
 아니호문
 소마호노
 소노보와
 고버화사
 서하야늘

高行割鼻 漢



京師節女長安人。其夫有仇人。欲報其夫而無道。聞其妻之仁孝有義。乃劫其妻之父。使要其女為中譎。父呼其女告之。女念不聽。則殺父不孝。聽則殺夫不義。不孝不義。雖生不可以行於世。欲以身當之。乃且許諾曰。旦日。在樓上新沐。東首卧。則是矣。妾請開戶待之。還家乃告其夫。使卧他所。自沐居樓上。東首開戶而卧。夜半仇家果至。斷頭持去。明而視之。乃其妻之頭也。仇人痛之。以為有義。遂釋不殺其夫。

詩 吾聞節女代夫牀。能使仇家不敢傷。計較兩端輕與重。平生孝義一身當。中宵新沐獨含情。白刃加身庶自明。縱釋良人置生地。留芳青史樹風聲。

高行。梁之寡婦。夫死早寡。不嫁。梁貴人爭欲娶之。不能得。梁王聞之。使相聘焉。高行曰。妾聞婦人之義。一往而不改。以全貞信之節。忘死而趨生。是不信也。貴而忘賤。是不貞也。棄義而從利。無以為人。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妾已刑矣。所以不死者。不忍幼弱之重孤也。王之求妾者。以其色也。今刑餘之人。殆可釋矣。於是相以報。王大其義。高其行。乃復其身。尊其號曰高行。

詩 貴人求娶。謾紛爭。千乘侯王聘未行。自道婦人貞信耳。豈容忘死却趨生。持刀割鼻作刑餘。幼穉重孤可忍諸。相以報來終自釋。梁王錫號亦倚歟。

강이두아
본네아
죽기늘네
의여하거
위곡히하
두근비히
몬져셔기
강이손조
머기더니
즈셔기세
다솜어마
세너기시
은혜로로
니라호고
애가죽거
올히그어
제집구실
야모으물

穆姜撫子漢



女圖

후로 못형
하야 다어

程文矩妻。字穆姜。有二男。而前妻四子。文矩為安衆令。喪於官。四子以母非所生。憎毀日積。而穆姜撫字益隆。衣食資供。皆無倍所生。前妻子興。遇疾困。薦母親調藥膳。恩情薦密。興疾瘳。呼三弟謂曰。繼母慈仁。吾兄弟不識恩養。雖母道益隆。我曹過惡深矣。遂將三弟詣南鄭獄。乞就刑辟。縣言之於郡。表異其母。蠲除家徭。遣散四子。許以脩葺。自後訓導愈明。並為良士。

詩 移天已喪在惇惇。撫育諸孤倍所生。訓導愈明隆母道。終教悔悟有賢名。義子頑愚視若讎。那知慈母似鳩鳩。終然悔過爭歸獄。始信人心本不偷。

貞義勿死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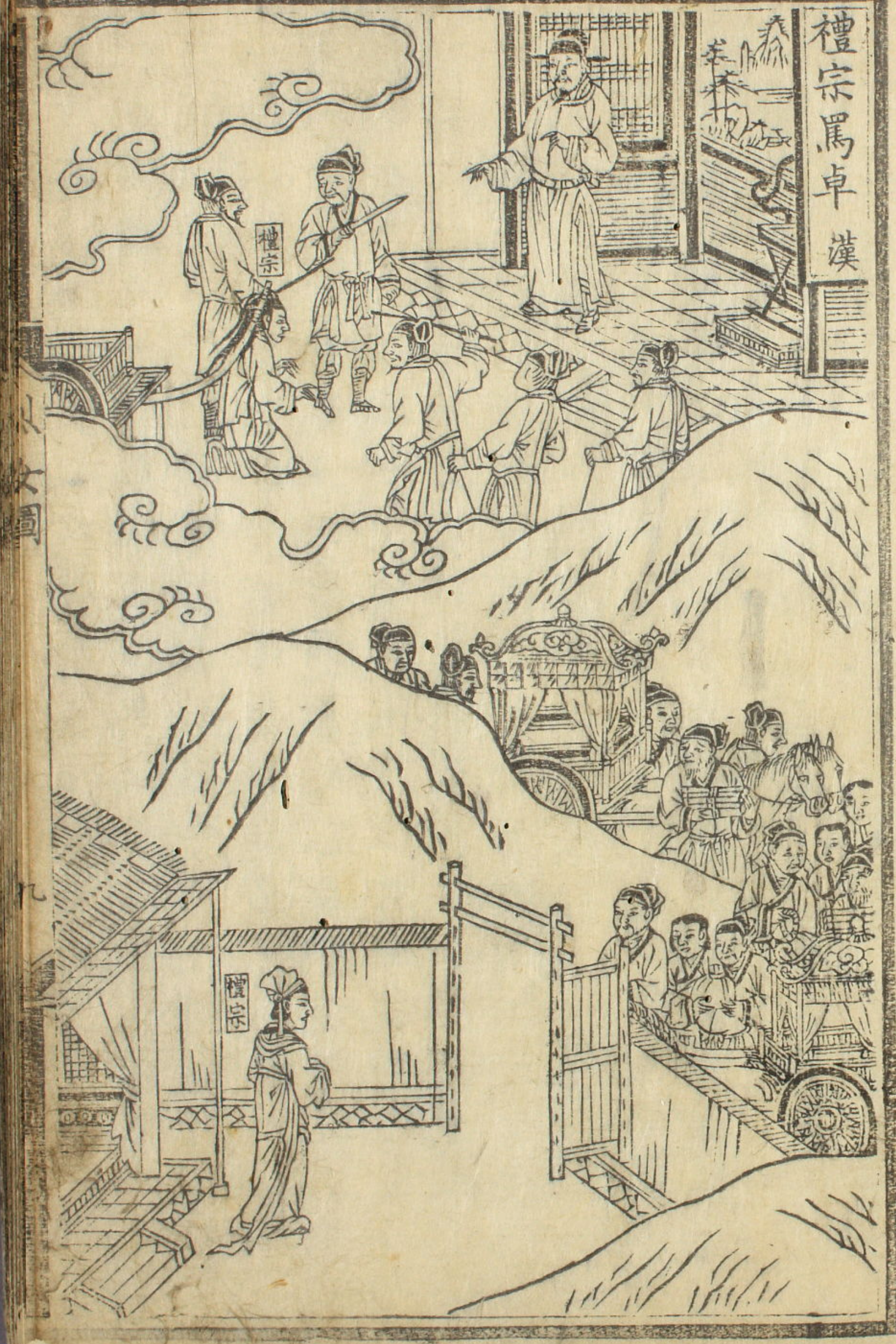
금호무저
어느그저
어디선반
니호믈며
고주노바
니호믈며
말더러일
부신려음
고머리나
라호야날
새늘그각
이미르야
머글것모
엇들기동
어미자바
디아니호
이너겨무
야바배리



들설위호
 다브리니
 시를일고
 큰저리걸
 도지기닐
 면살오나
 시어미로
 과시하르
 갈로머리
 자기시어
 라고은원
 미주기고
 시를레로
 호니라

樂羊子妻不知何氏女羊子嘗行路得金一餅還以與妻
 妻曰妾聞志士不飲盜泉之水廉者不受嗟來之食况拾
 遺求利以汙其行乎羊子大慙乃捐金於野而遠尋師學
 七年不返妻常躬勤養姑又遠饋羊子嘗有他舍雞謬入
 園中姑盜殺而食之妻對雞不餐而泣姑恠問其故妻曰
 自傷居貧使食有他肉姑竟棄之後盜有欲犯妻者乃先
 劫其姑妻聞操刀而出盜曰釋汝刀從我可全不從我則
 殺汝姑妻仰天而歎舉刀刎頭而死盜亦不殺其姑太守
 聞之捕殺盜而賜妻緜帛以禮葬之號曰貞義
 詩路拾黃金恥古人竊烹隣畜泣家貧姑能遷善郎勤
 學幾諫從容婦德新有盜來侵首劫姑謂言從已可
 全軀舉刀刎頸摧肝膽義烈貞姿照畫圖

시비점고
 이명일박
 다홀시노
 다독하디
 리하고
 리라마를
 하디니등
 오로갈새
 고닐오
 고사라파
 세호거지
 오호니그
 알오니리
 오랑개
 오딘독내
 내조상
 남진모글
 야한나랏



禮宗罵卓漢

禮宗

禮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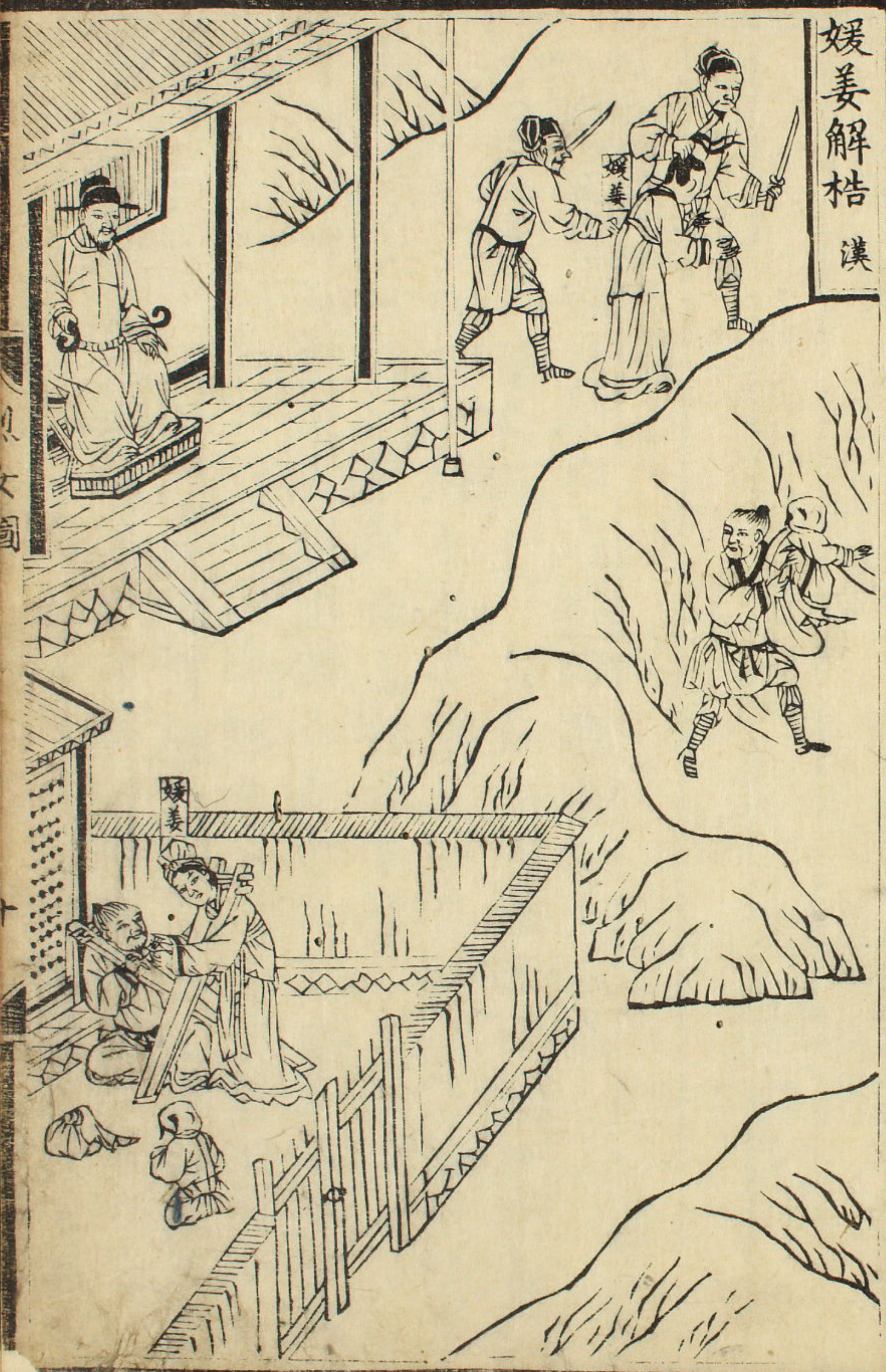
내남진의
완디네날
호리호리
그각시머
미오매로
논사롭다
아아니티
야은혜라
죽거늘후
그리고일
나라

皇甫規妻不知何氏女。規卒。妻年猶盛而容色美。董卓為相國。承其名。聘以駟輜百乘。馬二十匹。奴婢錢帛充路。妻乃輕服詣卓門。跪自陳請。辭甚酸愴。卓使侍者拔刀圍之。而謂曰。孤之威教。欲令四海風靡。何有不行於一婦人乎。妻知不免。乃立罵卓曰。君羌胡之種。毒害天下。猶未足耶。妾之先人。清德奕世。皇甫氏文武上才。為漢忠臣。君親非其趣。使走吏乎。敢欲行非禮於爾君夫人耶。卓乃引車庭中。以其頭懸軛。鞭撲交下。妻謂持杖者曰。何不重乎。速盡為惠。遂死車下。後人圖畫。號曰禮宗。

清德傳家節自純。肯從兇豎洗吾身。縱然四海皆風靡。威令難施一婦人。不畏庭前列劍鋒。陳辭立罵儘從容。甘心一死全清節。後世圖形號禮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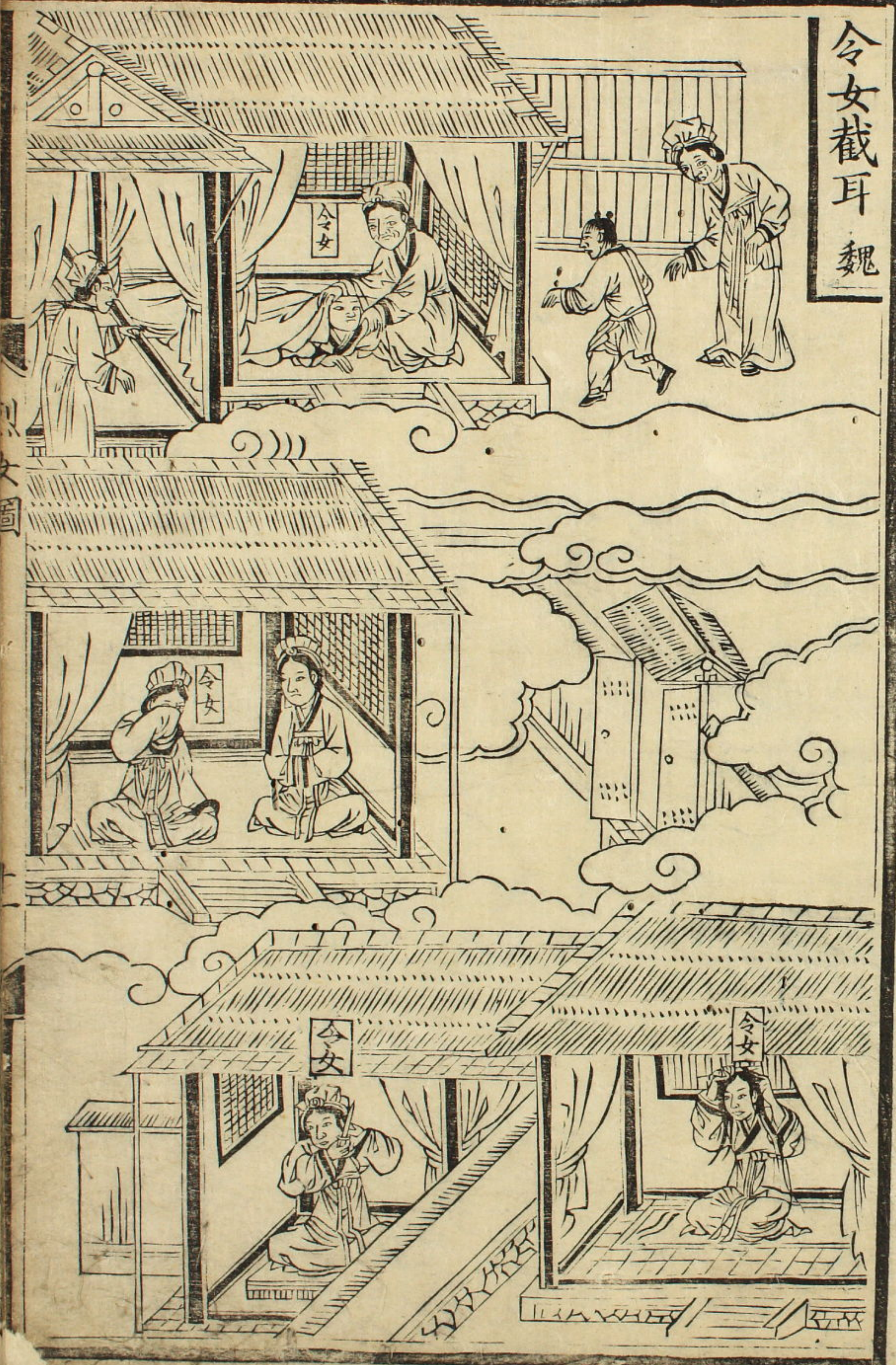
시의조는완
마니르와다
집요시와
새놀요시밤
근오티법이
이서사를풀
니도망하
밧겨비리고
빠주고다스
셔보내오남
글그르아니
리리간주물
근손디실로
리리니라
리마초아
감동하야
아니어르

媛姜解桔 漢



문숙의 거
사리러니
지니일주
규디점고
서당당이
야미리버
다로남진
로두귀버
논의지하
죄니버조
문녕이사
론대령레
허여하니
논고디드
니자노방
고홀버히
새놀어미
귀늘니보

令女截耳 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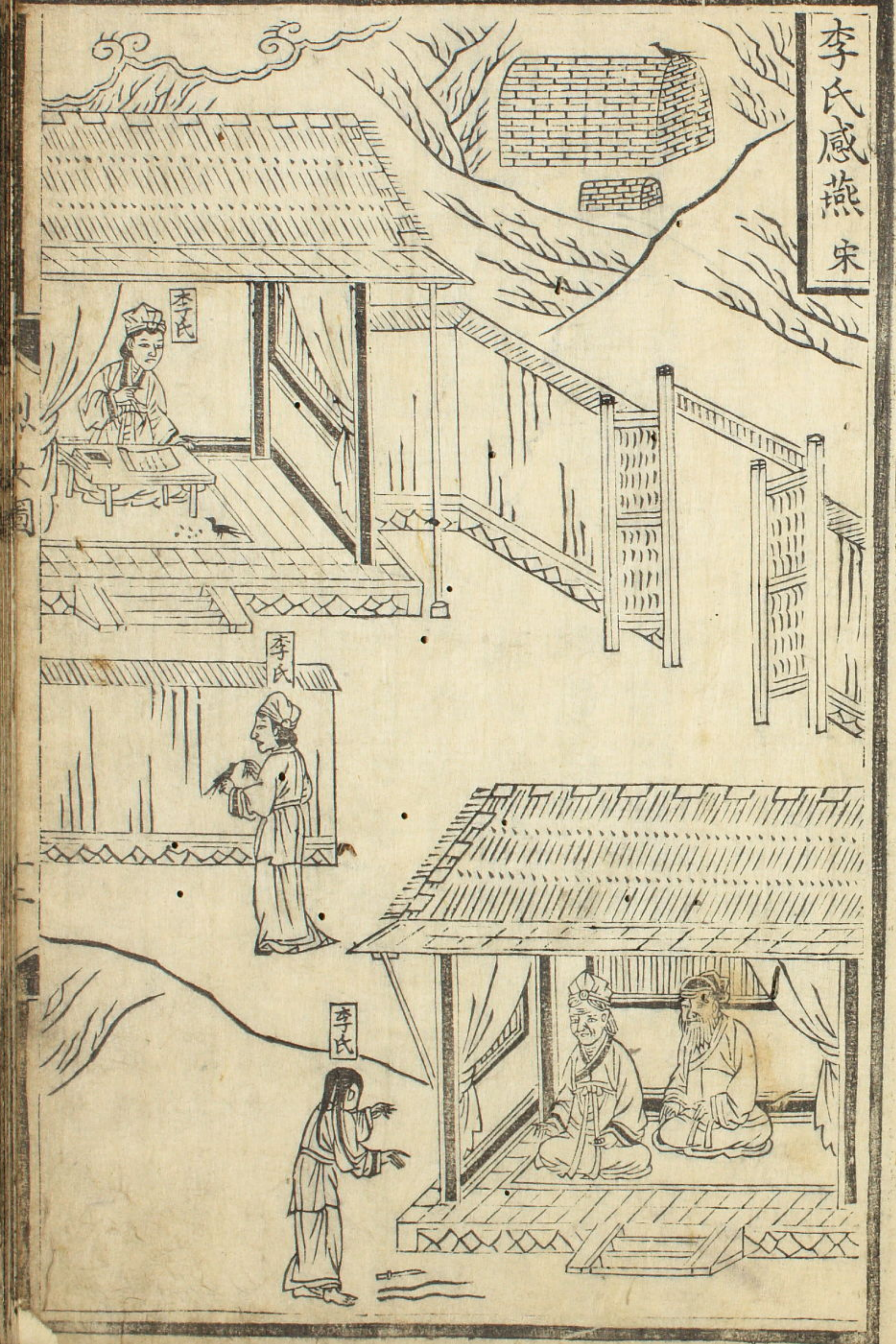
盛道妻趙氏字媛姜。建安五年。益部亂。道聚眾起兵。事敗。夫妻執繫當死。媛姜夜中告道曰。法有常刑。必無生望。君可速潛逃。建立門戶。妾自留獄。代君塞咎。道依違未從。媛姜便解道桎梏。為齎糧貨。子翔年五歲。使道攜持而走。媛姜代道持夜。應對不失。度道已遠。乃以實告吏。應時見殺。道父子會赦得歸。道感其義。終身不娶。

詩 淑人趙氏字媛姜。塞咎捐生最可傷。父子俱全門戶立。終身不娶義難忘。盛道胡為欲弄兵。渾家繫獄勢難生。賢媛代戮存宗祀。竹帛千秋有令名。

시스물한
부외다문
머리버히
고다문남
더니지비
문암저비
시감동농
다하고바
듬히예선
의밤먹고
지엇셔니
거논니시
에백입시
혼자오도
등흔시다
차마물중
오니니시
비그지비

시스물한
부외다문
머리버히
고다문남
더니지비
문암저비
시감동농
다하고바
듬히예선
의밤먹고
지엇셔니
거논니시
에백입시
혼자오도
등흔시다
차마물중
오니니시
비그지비

李氏感燕宋



曹爽從弟文叔妻夏侯文寧之女。名令女。文叔蚤死。服闋。自以年少無子。恐家必嫁已。乃斷髮為信。後家果欲嫁之。令女復以刀截兩耳。居止常依爽。及爽被誅。曹氏盡死。文寧憐其少執義。又曹氏無遺類。冀其意沮。乃微使人風之。令女泣曰。吾亦惟之。許之是也。家以為信。防之少懈。令女竊入寢室。以刀斷鼻。蒙被而卧。母呼不應。發被視之。血流滿床席。舉家驚惶。往視之。莫不酸鼻。或謂曰。人生世間。如輕塵棲弱草耳。何辛苦乃爾。且夫家夷滅已盡。欲誰為哉。令女曰。聞仁者不以盛衰改節。義者不以存亡易心。曹氏盛時。尚欲保終。况今衰亡。何忍棄之。禽獸之行。吾豈為乎。 **詩** 斷髮無他露至誠。爺孃何欲奪其情。伺間剗刖仍蒙被。血滿床頭孰不驚。 夫家夷滅復依誰。此是常情所忽時。令女不將衰與盛。始終如一行無虧。

다아니하
기너겨볼
덧나니라
제바르그
피우리밥
사르미그
저의무디

衛敬瑜早喪。妻李氏年二十而寡。父母欲嫁。強之不從。遂
剪髮跣足。誓不改適。所居有雙燕巢之。一日忽雌燕孤飛。
李感之。謂曰。能如我乎。因以縷誌其足。明年復來。孤飛如
故。食李之飯。棲李之室。若是者數年。李作詩曰。昔年無偶
去。今春還獨歸。故人情意重。不忍更雙飛。又明年來。則李
已死。燕於其舍。哀鳴不已。人義之。告已死及葬處。即徑往
墓。哀鳴不食而死。人因瘞之於傍。號曰燕冢。氏事文類聚李
氏作姚玉京

詩 年少夫亡最可憐。爺孃欲嫁節彌堅。跣行剪髮終無
改。凜冽高風罕比肩。雌鷺依棲李氏堂。孤飛往復數
年強。主人已逝竟誰托。不食哀鳴死冢傍。

세우장래
차갈녀가
남진호도
괴엿셔니
소족의살
되얏싸가오
주글샘이
거집도외
야논모든
고평상우
려커늘최
소겨닐오
니하노양
야논도조
시도조기
어셔닐오
기고죽고
라하야

崔氏見射 隋



崔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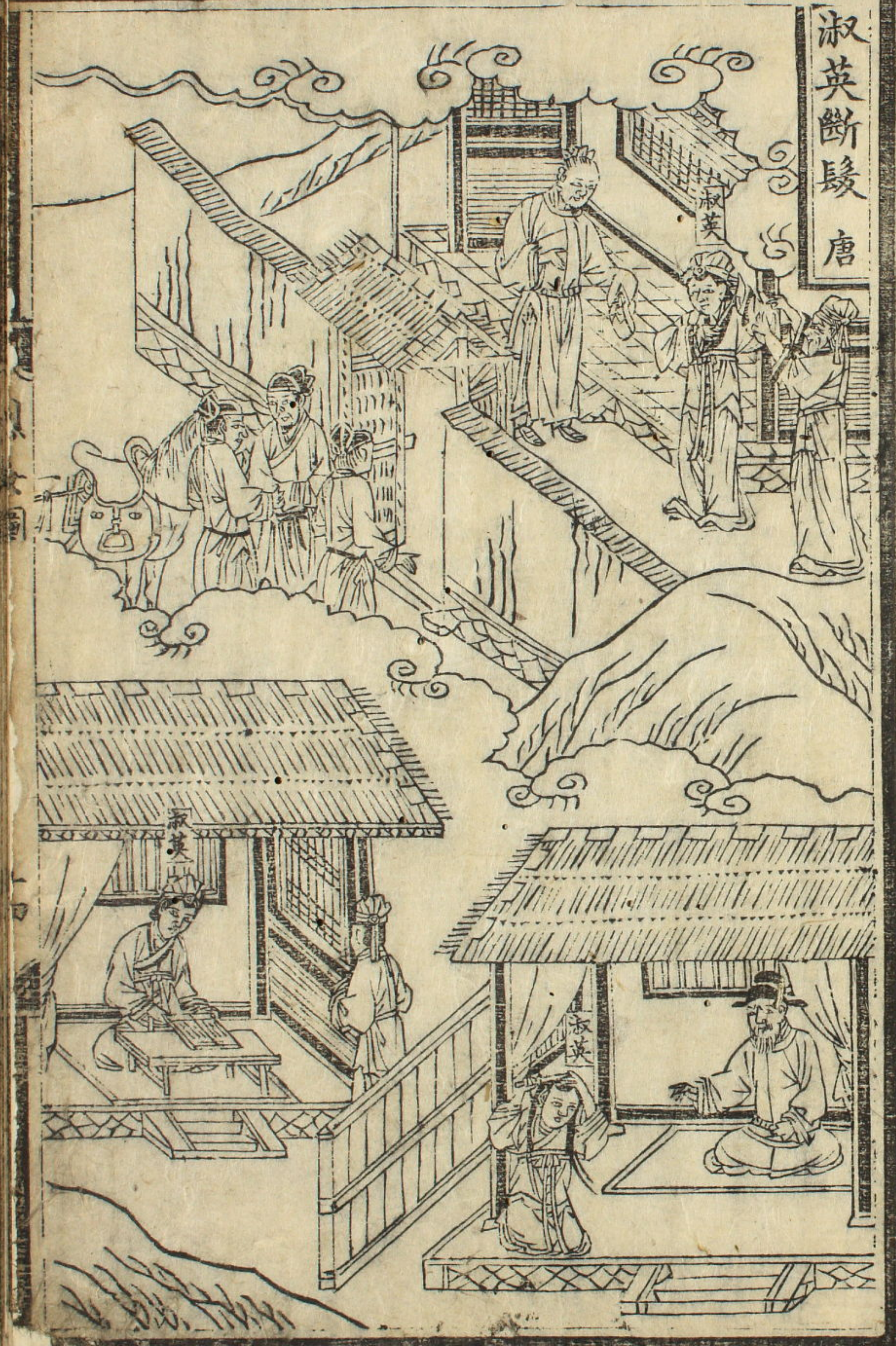
十三

趙元楷妻崔氏。甚有禮度。字文化。及之反。元楷隨至河北。將歸長安。至澄口。遇盜。僅以身免。崔為賊所拘。請以為妻。崔曰。我士大夫女。為僕射子妻。今日破亡。自可即死。終不為賊婦。群賊毀裂其衣。縛於林箐之上。將凌之。崔懼為所辱。詐之曰。今力已屈。當受處分。賊遂釋之。妻因取賊刀。倚樹而立。曰。欲殺我。任加刀鋸。若覓死。可來相逼。賊大怒。亂射殺之。

流離避賊勢。蒼皇澄口途中遇犬羊。凌辱百端終不屈。凜然高節逼秋霜。權辭只為力難支。視死如歸不可追。唯有當時一株樹。年年蕭瑟使人悲。

시저머서
은히소리
흔히남쪽
귀향가거
라히열조
덕뒤비시
도라올이
이다른지
괴셔아조
비시디답
히니비한
너나르뜰
귀롬베혀
어미말이
아으론명
로매레도
네의향이
다하더니

淑英斷髮 唐



두남진아
보고닐오
리어니엇
더라후열
도라왓서
유려커늘
니먹거늘
졸알고제
위다문겨
오다가길
동여인노
블도로보
티사니라

李德武妻裴氏。字淑英。安邑公矩之女。以孝聞鄉黨。德武在隋。坐事徙嶺南。時嫁方踰歲。矩表離婚。德武謂裴曰。我方貶無還理。君必儼他族。于此長決矣。荅曰。夫天也。可背乎。願死無他。欲割耳誓。保姆持不許。夫媚。歲時朔望。裴致禮惟謹。居不御薰澤。讀列女傳。見述不更嫁者。謂人曰。不踐二庭。婦人之常。何異而載之書。後十年。德武未還。矩決嫁之。斷髮不食。矩知不能奪。聽之。德武更娶朱氏。遇赦還。中道聞其完節。乃遣後妻。為夫婦如初。

詩 嫁方踰歲。樂初酣。坐事移天配嶺南。長訣一言真。激切。不歸他族死。猶甘。剪髮焦心守一閨。胡為德武納他妻。赦還中道聞完節。相好如初復與齊。

위시니양
팀이병이
오디그디
몬하노라
오디주곰
돈아히돌
주구미내
언팀이죽
애도조르
말들고아
시닐오디
몬하얏새
하니내타
손시라골
티여어루
군시갈하
오디내말
하리라하

魏氏斬指唐



리호야닐
금옥호려
내쁘디라

樊彦琛妻魏氏。楊州人。彦琛病。魏曰。公病且篤。不忍公獨死。彦琛曰。死生常道也。幸養諸孤。使成立。相從而死。非吾取也。彦琛卒。值徐敬業難。陷兵中。聞其知音。令鼓箏。魏曰。夫亡不死。而逼我管絃。禍由我發。引刀斬其指。軍伍欲疆妻之。固拒不從。乃刃擬頸曰。從我者不死。魏厲聲曰。狗盜乃欲辱人。速死吾志也。乃見害。

詩 合巹曾成偕老期。良人乘化盍相隨。佩銘幸養諸孤語。吊影當時獨自悲。遭時不幸陷兵中。逼使彈箏欲玷躬。斬指抗辭終遇害。留名千古播貞風。

의이병호
지비가난
사셔니그겨
안고주검
원의드러
의심하야
저를시나
니쥬인이
니시하늘
닐오더내
개란디키
니미게쥬
음조차더
고고주재
니길넬사
탄하야후
리도잇셔
와늘구위

李氏負骸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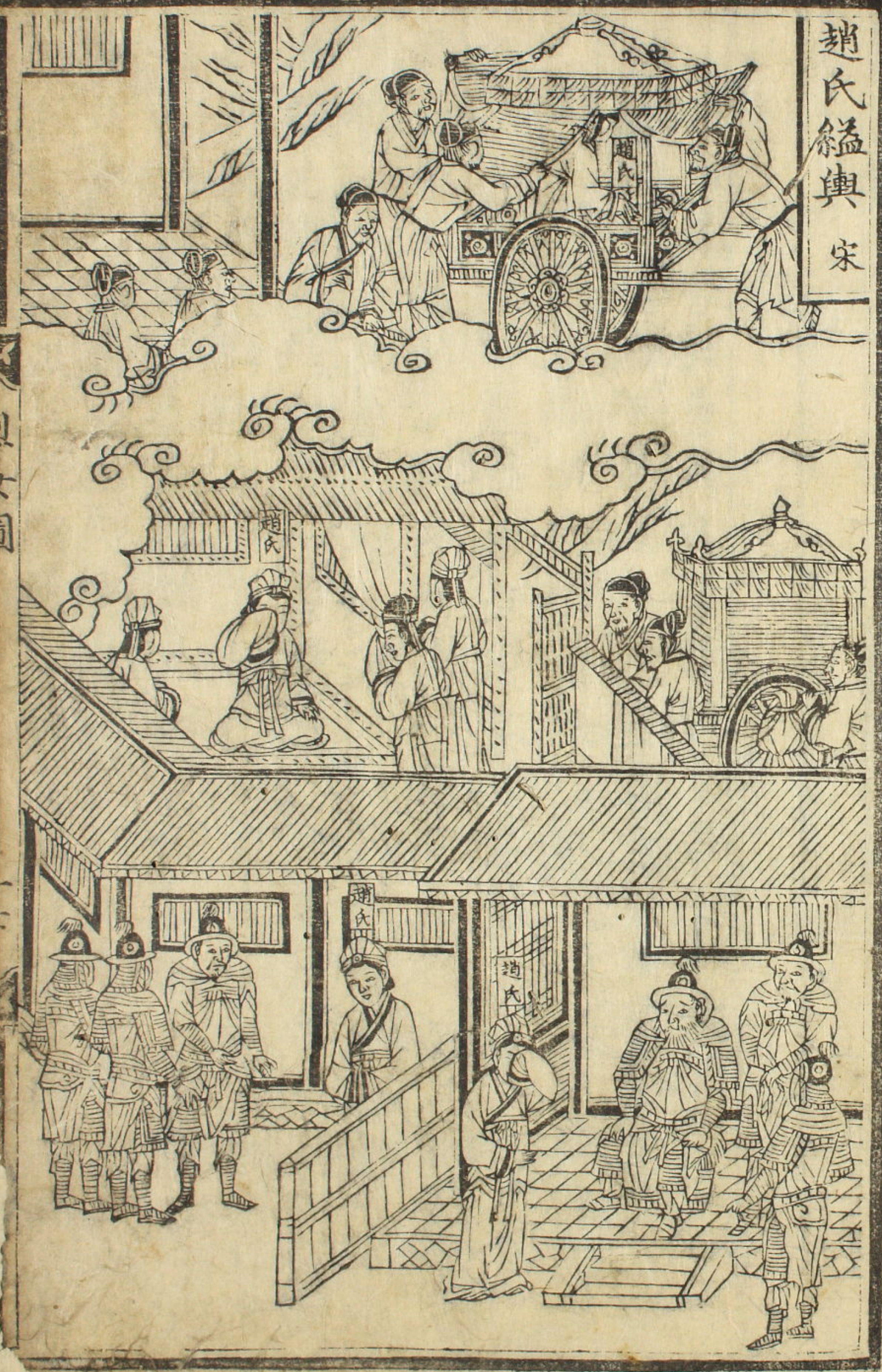
고를바라
어엿히너
그양호니라

王凝家青齊之間。為雍州司戶參軍。以疾卒于官。家素貧。一子尚幼。妻李氏携其子。負其遺骸以歸。東過開封。止旅舍。主人見其婦人獨携一子而疑之。不許其宿。李顧天已暮。不肯去。主人牽其臂而出之。李仰天長慟曰。我為婦人。不能守節。而此手為人執邪。不可以一手并污吾身。即引斧自斷其臂。路人見者環聚而嗟之。或為之彈指。或為之泣下。開封尹聞之。白其事于朝。官為賜藥封瘡。厚恤李氏。而答其主人。

詩 參軍一日卒於官。携幼持骸。道路難旅。舍日曛。遭辱斥。奮然長慟。涕沈瀾。執節無如。斷臂難。行人環視。拍爭彈。當時賴有開封奏。恩命翻為聳聽觀。

도시급단
자바가겨
시날마다
지라커늘
랑호야주
롬여러을
고시버서나
거닐오더
커든도호
로남치호
고디드러제
르미절로
활란어들
능야디키
플그초고
만하하야
집사름더
다내다시

趙氏縊輿 宋



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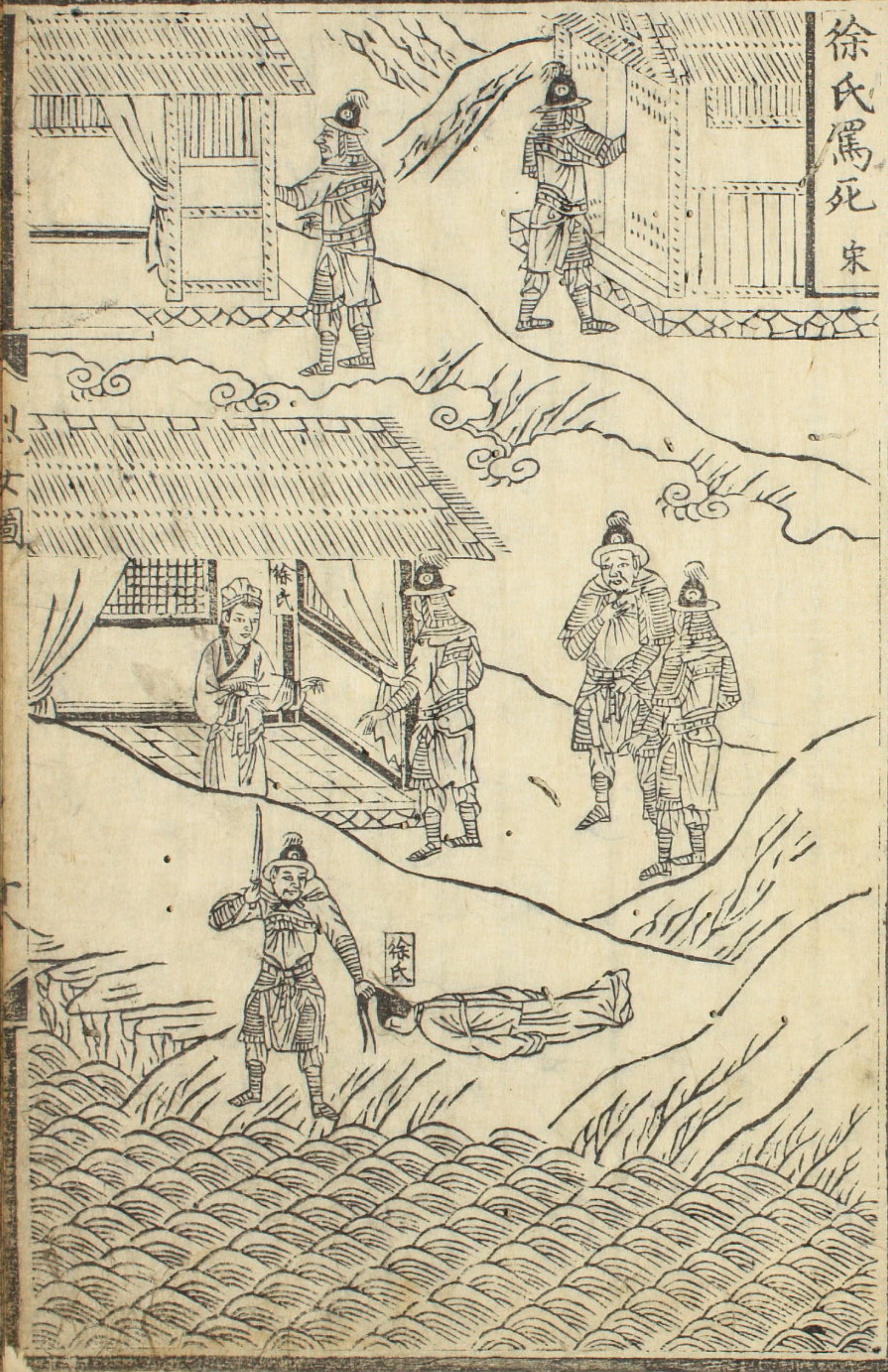
리라하야
 되엇셔도
 리이욕하
 시료집사
 마결에위
 논다하야
 별업스니
 니거늘고
 거더보니
 셔라상셔
 사루미도
 인니라

趙氏。貝州人。王則反。聞趙有殊色。使人劫之。欲納為妻。趙日號哭。慢罵求死。賊愛其色。不殺。多使人守之。趙知不脫。乃給曰。必欲妻我。宜擇日以禮聘。賊從之。使歸其家。家人懼其自殞。得禍于賊。益使人守視。賊具聘幣。盛輿從來迎。趙與家人訣曰。吾不復歸此矣。問其故。荅曰。豈有為賊汙辱至此。而尚有生理乎。家人曰。汝忍不為家族計。趙曰。第無患。遂涕泣登輿而去。至州解。舉簾視之。已自縊輿中死矣。尚書屯田員外郎張寅有趙女詩。

詩 羨色從來禍所嬰。賊修婚禮強來迎。登輿泣與家人訣。汚辱如斯不苟生。就死從容世所難。屹然高義重於山。莫言殊色為身祟。留得香名汗竹間。

공동의사
 노당필의
 나랏오랑
 오나돌강
 미쳐서시
 거늘서시
 려이너희
 이제도찌
 범접하거
 고스이어
 거지비라
 버허니미
 동논이를
 개슈요하
 리나를주
 노하야갈
 애드리티

徐氏罵死 宋



안인사사
와거지비
아더니샤
비이섬기
천호미다
득이사흥
해도망흥
시두아들
리에수머
몸온브더
군사자괴
을내오디
네모올사
야놀니
다스로
하리라
음히예
사녀니



徐氏和州閩中女。適同郡張弼。建炎三年春。金人犯維揚。官軍望風奔潰。多肆虜掠。執徐欲汙之。徐贖目。大罵曰。朝廷蓄汝輩以備緩急。今敵犯行在。既不能赴難。又乘時為盜。我恨一女子。不能引劍斷汝頭。以快眾憤。肯為汝辱。以苟活邪。第速殺我。賊恚。以刃刺殺之。投江中而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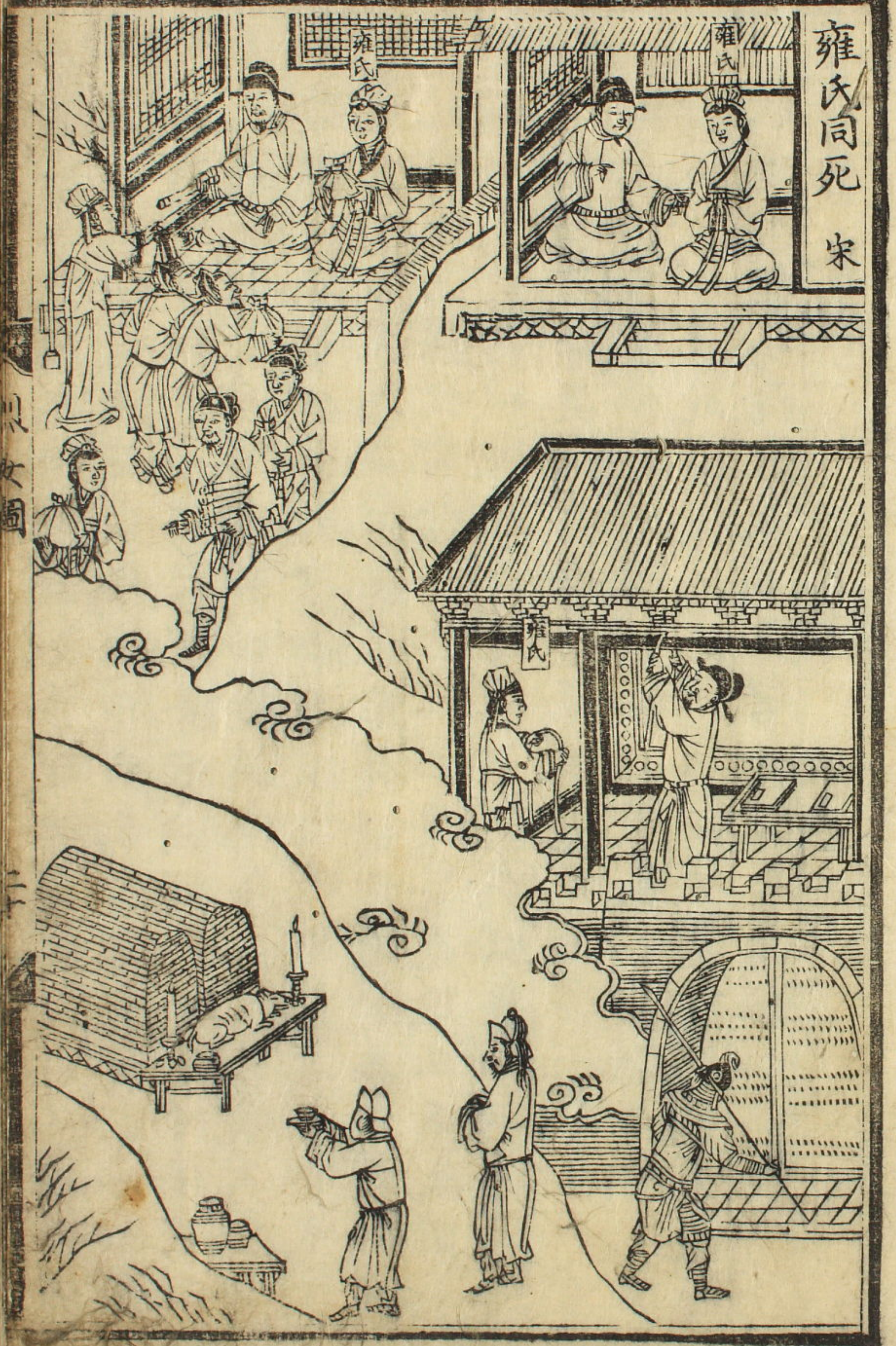
詩 官軍奔潰自相屠。徐氏蒼皇被執拘。不獨當時全淑行。美名今日上新圖。大罵言辭出至忱。官軍將卒獨何心。至今江水鳴嗚咽。多少行人痛憤深。

구위예드
 이훈대니시
 사며우더니
 주드리도구
 이일데도될
 고하야늘니
 서두남진어
 로물도라보
 흥허사라무
 의어미로이
 내종내이반
 고고그남바
 무미야주그

謝枋得之妻李氏安仁人色美而慧通女訓諸書嫁枋得
 事舅姑奉祭待賓皆有禮枋得起兵守安仁兵敗逃入閩
 中武萬戶以枋得豪傑恐有扇變購捕之根及其家人李
 携二子匿貴溪山荆棘中採草木而食至元十四年冬元
 兵蹤跡至山中令曰苟不獲李屠而墟李聞之曰豈可以
 我故累人吾出事塞矣遂就俘明年徙囚建康或指李言
 曰是當沒入矣李聞之撫二子凄然而泣左右曰雖沒入
 將不失為官人妻何泣也李曰吾豈可嫁二夫邪顧謂二
 子曰若幸生還善事吾姑吾不得終養矣是夕解裙帶自
 經獄中死

良人兵敗走閩中匿跡山林固守窮聞說里閭將累
 及翻然就獲自當躬 拘囚二載欲捐軀泣訣諸兒善
 事姑志節凜然堪勸俗也宜褒獎繪新圖

관개디쥬
 관도묘발
 관오디성
 나나노디킨
 하러니와네
 야늘용시
 신이도외어
 지비본도할
 래가서르조
 느묘발이
 지비노하
 시닐오디내
 지라하야
 니라이트나
 터아이며아
 주어다보내
 논거늘묘발
 그늘스되



雍氏同死 宋

可근신동
 기은뵈살다
 후록호스
 피내야박
 야장
 주그나라후
 드러다들
 부프러나
 후에정표
 고을원이그
 일호은고
 니라

王貞婦。夫家臨海人。德祐二年冬。元兵入浙東。與其舅姑
 夫皆被執。既而舅姑與夫皆死。主將見婦。暫美。欲內之。婦
 號慟。欲自殺。為奪。挽不得死。夜令係囚。婦人雜守之。婦陽
 謂主將曰。以吾為妻妾者。欲令終身善事也。吾舅姑與夫
 死而不為之哀。是不天也。不天之人。將焉用之。願請為服
 期。即惟命。苟不聽我。我終死耳。主將恐其誠死。許之。然防
 守益嚴。明年春。師還。挈行至嶧。青楓嶺下。臨絕壑。婦待守
 者少懈。嚙指出血。書字山石上。南望慟哭。自投崖下而死。
 後其血皆漬入石間。盡化為石。天且陰雨。即墳起如始。書
 時。元至治中。旌為貞婦。郡守立石祠嶺上。易名曰清風嶺。
詩 不幸元兵入浙東。舅姑夫壻陷軍中。自將暫美知難
 免。百計陽言請服終。行至青楓險且危。血書山石獨
 天知。一從慟哭投崖死。嶺上清風萬古吹。

비은두어
 시다와다
 의약호디
 면당당이
 유목아니
 이우고갓
 늘호천회
 케늘소터
 이실시태
 낸후에야
 호대천회
 주고호살
 주마라
 심리남죽
 량시세나
 구지조디
 남진과딩
 신이아르



梁氏被殺 宋

은출히조
를물논리
스기주기

관안당의의
이란남금이
가실저괴당
기논당의의
는아드리잇
명슈제아들
림의란애중
라다가제곰
명슈듣고저
씨고금과비
싸관과제홀
야두고집사
오디최림이
기지블굿연
티잇새니내
오직주거도
아니호리라
기름이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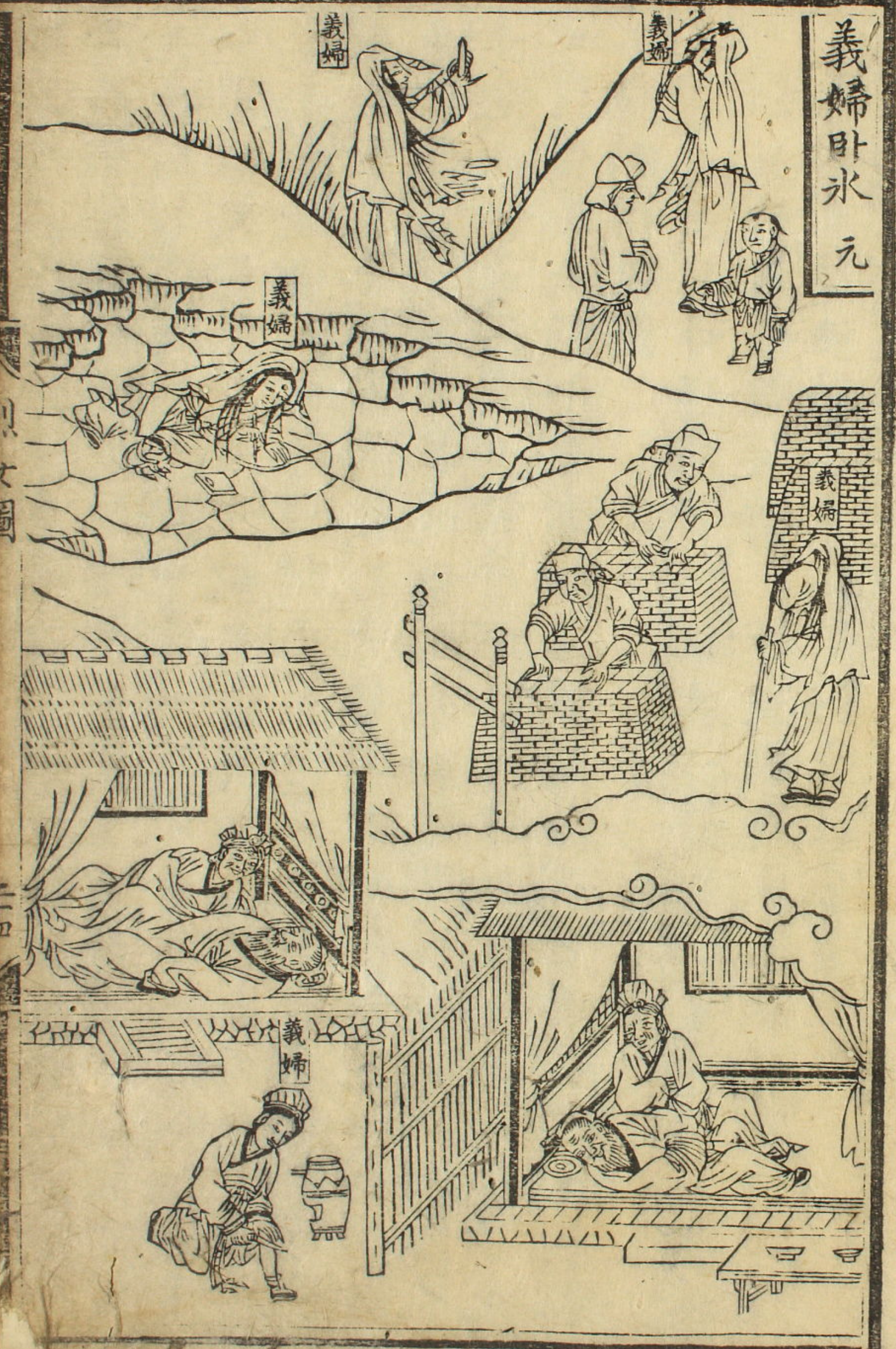
明秀眞棺 金



王氏婦梁臨川人。歸夫家纔數月。會元兵至。與夫約曰。吾
遇兵必死。義不受汙辱。頃之。夫婦被掠。有軍千戶強使從
已。婦給曰。夫在。伉儷之情有所不忍。乞歸之。而後可。千戶
以所得金帛與其夫而歸之。并與一矢。以却後兵。約行十
餘里。千戶即之。婦拒且罵曰。斫頭奴。吾與夫誓。天地鬼神
寔臨之。此身寧死。不可得也。因奮搏之。乃被殺。
計。誓死蒼天實鑑予。家室俱為虜所擒。緩辭元是活
夫心。忘生抗節誰能犯。磊落貞姿想至今。

북마야주고
너저하더니
닐굽이러라

리고군마기
당시의아비
포도하더니
어미병하얏
기비허구타
상이며무물
한숨디허닐
리박괴죽거
온디물호모
스시고남진
든내주그물
百우희누어
히나를남진
다하시게든
디아니하리
모디죽디아
크게스고닐



蒲察氏。字明秀。完顏長樂之妻也。哀宗遷歸德。以長樂為總領。將兵扈從。長樂一子在幼。出妻柴氏所生也。明秀撫育如已出。崔立之變。驅從官妻子。人自閱之。蒲察聞。以幼子付婢僕。且與之金幣。親具衣棺祭物。與家人訣曰。崔立不道。強人妻女。兵在城下。吾何所逃。惟一死不負吾夫耳。汝等惟善養幼子。遂自縊而死。欣然若不以為難者。年二十七。

詩 良人扈從返無期。義子零丁幼且癡。撫育真能如已出。生平母道儘無虧。逃難全身計已窮。幼兒金幣付家僮。自治喪具從容死。千載爭欽烈婦風。

아츠아돌부하
르니개양남
구엇새늘당
도외야잇새늘
히게느려당사
니르고씨인도
내어씨가저비
금지니어든이
가갓쁘리동
더라구위에서
세오집구시

張義婦。濟南人。歸里人李伍。伍與從子零。戍福寧。未幾死。戍所。張養舅姑甚。至。父母舅姑病。凡四割股肉。救不懈。及死。喪葬無遺禮。既而歎曰。妾夫死數千里外。不能歸葬者。以舅姑父母在。無所仰故也。今父母舅姑死。而夫骨暴棄遠土。妾敢愛死乎。乃卧積冰上。誓曰。天若許妾取夫骨。雖寒甚。當不死。踰月不死。乃大書其事于衣。行四十日。至福寧。見零。問夫葬地。則榛莽四塞。張哀慟欲絕。夫忽降于童。告張死時事。且指骨所在處。張如言發得之。持骨祝曰。爾信妾夫邪。入口當如冰雪。黏如膠。已而果然。官義之上府。旌門復家。

公姑父母病難醫。四把霜刀刻玉肌。豈獨養生能不懈。更治喪祭禮無虧。千里夫屍久未收。卧冰為誓遂行求。至誠能致精靈感。果得遺骸葬古丘。

시호의어미
야히되점중
히섬겨잠산
인연되니도
다된거늘동
미로물리오
어루러거늘
쇼골티아니
호인골호티
니커늘쇼을
지조물그치
드사르미것
고가니이튼

童氏皮面元



童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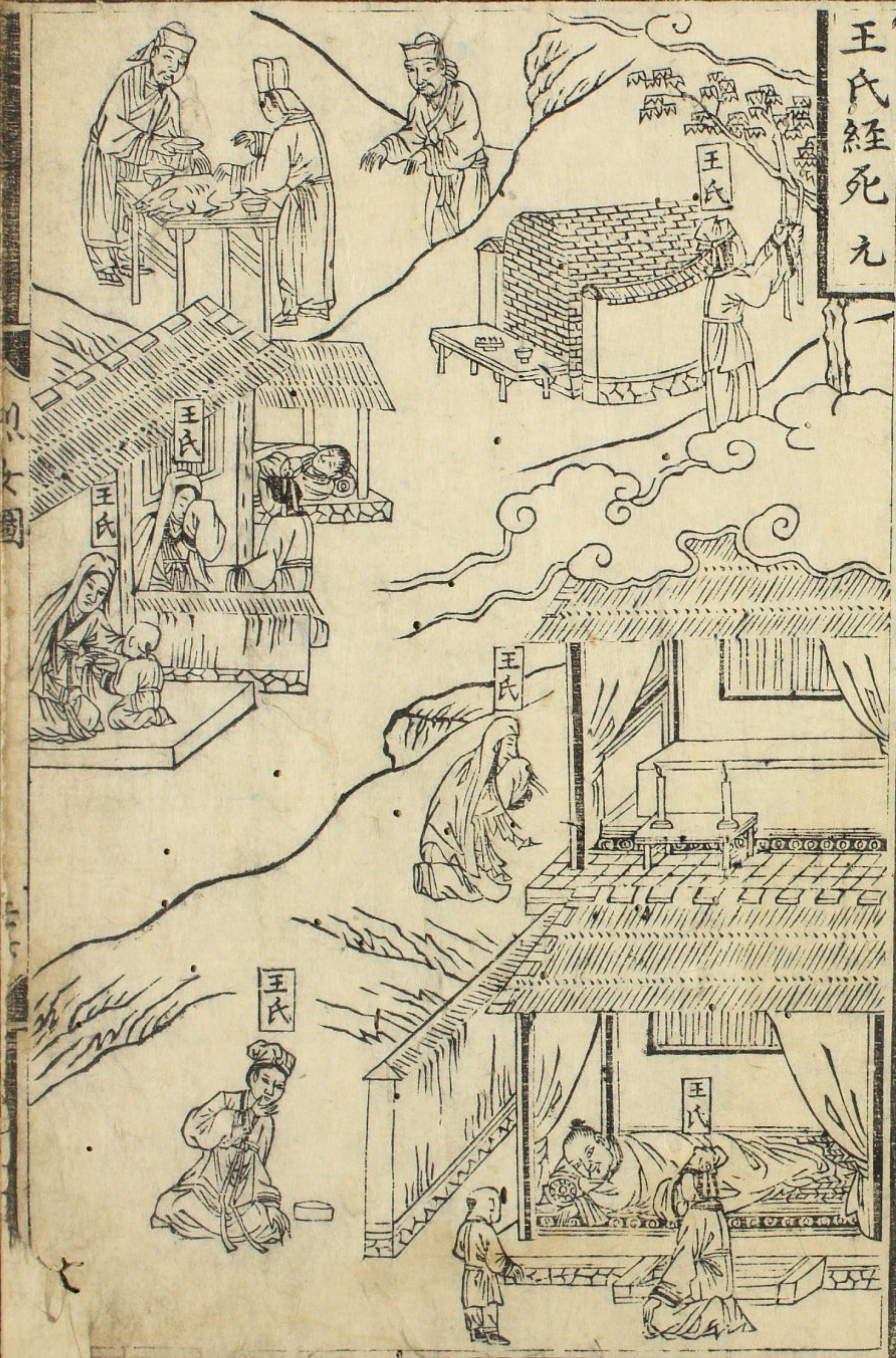
童氏

童氏

童氏

노예세늘터
나노드로니
곳바면도노
니저기돌어
더타남지니
일당은도호
만지식을네
거든네다론
대왕시을으
인마를호시
스시면내일
고마리이시
김겨지비이
영이대기르
나호른호
르왕사분묘
니모술허
를겨터두

王氏經死元



俞士淵妻童氏嚴州人。姑性嚴待之寡恩。童柔順以奉之。無少拂其意者。至正十三年。賊陷威平。官軍復之。已乃縱兵剽掠。至士淵家。童以身蔽姑。衆欲汙之。童大罵不屈。一卒以刀擊其左臂。愈不屈。又一卒斷其右臂。罵猶不絕。衆乃皮其面而去。明日乃死。

詩 天性堅貞婦道成。事姑承順發深情。官軍標掠無人過。能捍艱危不愛生。衆兵交刃入門攔。罵賊危言出肺肝。斷臂猶能終不屈。每令聞者駭衝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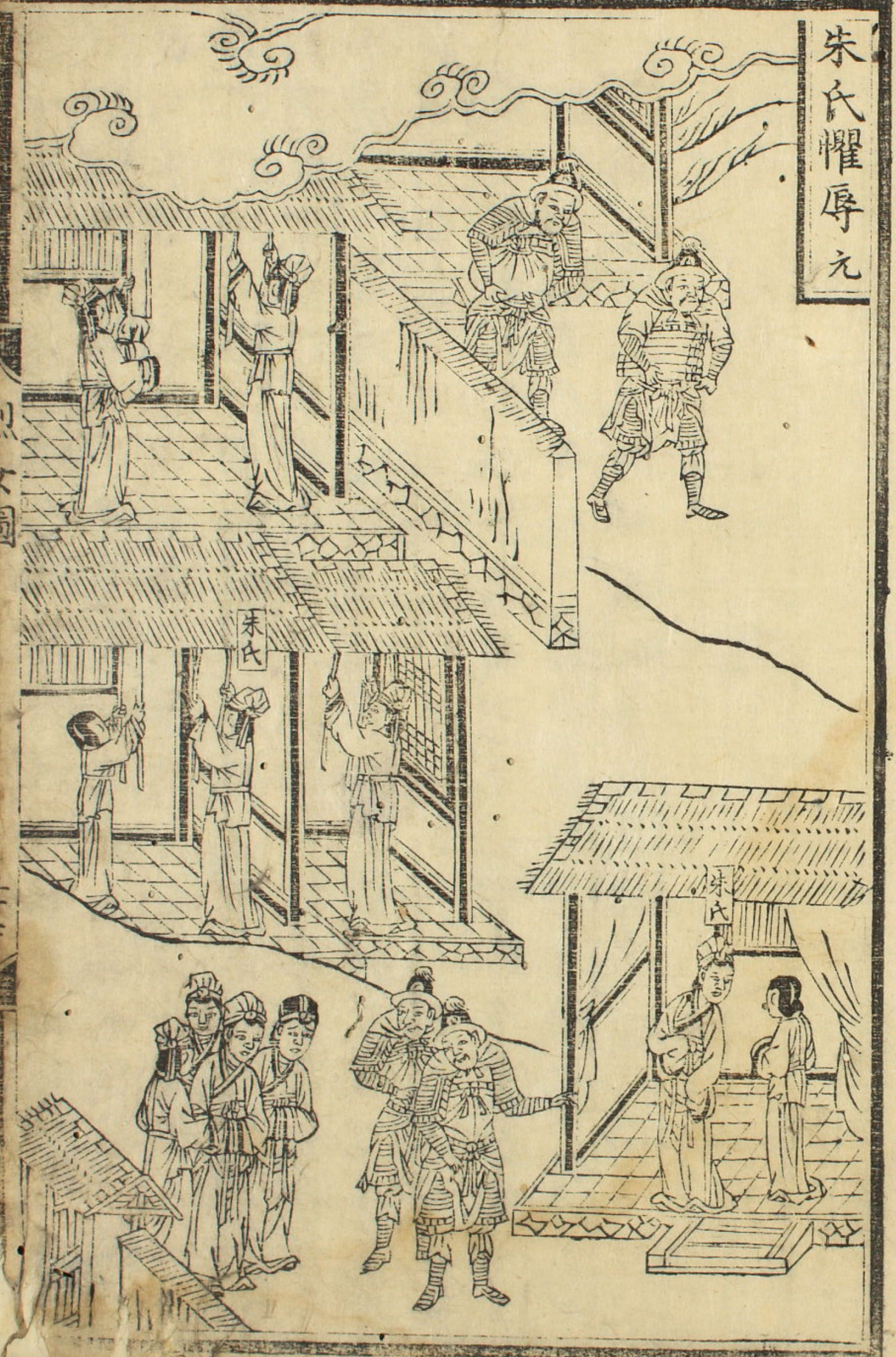
다 칩도다
 더니호히
 가늘을며
 다올이리업
 은호로주그
 이늘라구호
 다차늘관당
 히다술가지
 도제호고모
 거늘왕시본
 수그니라

惠士玄妻王氏大都人。士玄病革。王曰。吾聞病者糞苦則愈。乃嘗其糞。頗甘。王色愈憂。士玄囑王曰。我病必不起。前妾所生子。汝善保護之。待此子稍長。即從汝自嫁矣。王泣曰。君何為出此言邪。設有不諱。妾義當死。尚復有他說乎。君有兄嫂。此兒必不失所。居數日。士玄卒。王居墓側。蓬首垢面。哀毀逾禮。常以妾子置左右。飲食寒暖。惟恐不至。歲餘。妾子亦死。乃哭曰。無復望矣。屢引刀自殺。家人驚救得免。至終喪。親舊皆携酒禮祭士玄于墓。祭畢。衆欲行酒。王已經死於樹矣。

詩 病勢纏綿已向深。糞甜憂思更欽欽。延生閱歲無他意。不負良人囑子心。夫死廬墳正致哀。遺孤亦逝已焉哉。終喪便爾自經死。親舊無由行酒盃。

朱氏懼辱元

시는항쉬사
 이항취사해
 등괴사리두
 기오니내어
 주그러호닝
 우고도즈기
 슈시의어이
 디딕크라내
 호야놀쥬시
 두러설와다
 셴풍사도보
 라므슴호료
 도다호고호
 그의아기십
 인고젓어미
 야죽거늘나
 오니주거미
 새늘세간



시노방산사
 의히운이크
 슌글히머글
 를자바솔마
 의의아이드
 시드러닐어
 울며사해업
 데내남지니
 리지비자운
 되와잇니니
 고내남지니
 야놀듣디아
 내남지논여
 알지고거문
 다하니내
 기남진의갑
 야놀군시
 뉴시를솔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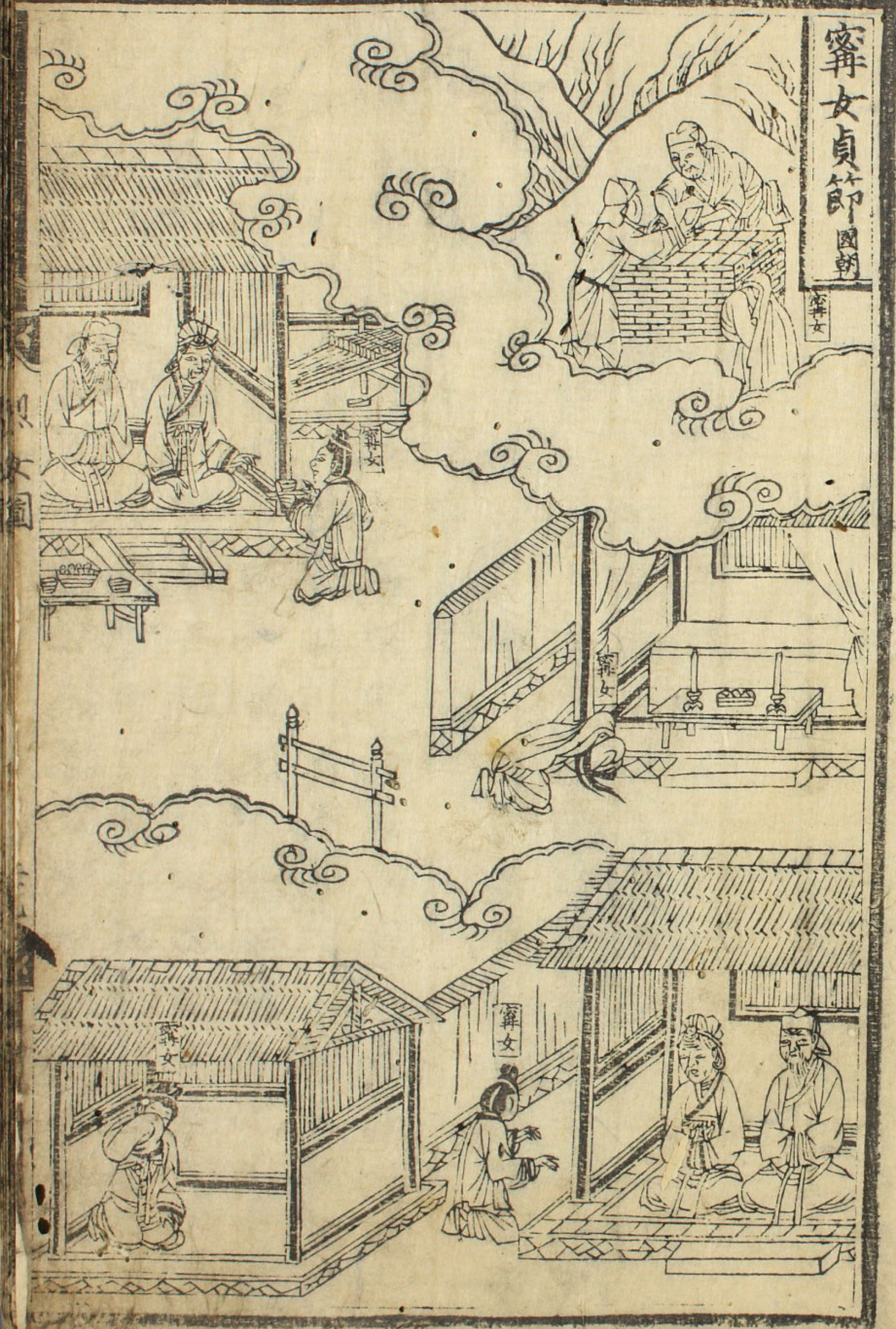


翠哥就烹元

黃仲起妻朱氏杭州人。至正十六年。張士誠寇杭州。其女
 臨安奴。倉皇言曰。賊至矣。我別母。求一死也。俄而賊驅諸
 婦。至其家。且指朱氏母子曰。為我看守。日暮我當至也。朱
 聞之。懼受辱。遂與女俱縊死。妾馮氏。見母子已死。嘆曰。我
 生何為。徒受辱耳。亦自縊死。繼而仲起弟妻蔡氏。抱幼子
 玄童。與乳母湯氏。皆自縊。及暮。賊至。見諸屍滿室。遂盡掠
 其家財而去。

詩 兇徒暴橫寇杭州。日暮倉皇抱百憂。守義輕生求一
 死。清標凜烈照千秋。臨危孰不欲安全。母子俱亡寂
 可憐。俄頃數人相繼死。一家高義耀青篇。

스세남진열
 지니조라귀를
 우더니부모
 사귀미닐오
 진아니하
 록후디독자
 레물바다부
 덩하야겨시
 능야죽고그
 율디업스니
 어링잇고남
 어버이로호
 은대부외쳐
 다가다시
 라하야놀
 데다이무드
 이받기늘신
 은조와놀고



竊女貞節圖

李仲義妻劉氏名翠哥房山人至正二十年縣大饑平章
 劉哈刺不花兵乏食執仲義欲烹之仲義弟馬兒走報劉
 氏劉遽往救之涕泣伏地告於兵曰所執者是吾夫也乞
 矜憐之貸其生吾家有醬一甕米一斗五升窖于地中可
 掘取之以代吾夫兵不從劉曰吾夫瘦小不可食吾聞婦
 人肥黑者味美吾肥且黑願就烹以代夫死兵遂釋其夫
 而烹劉氏

詩 元季年飢又起兵人將相食競紛爭釋夫心切生堪
 捨慷慨持身自就烹 代夫身命即捐軀遂使奸兇噬
 我膚高義感人入自服聞風百世盡嗟吁

甯氏女許嫁劉真兒未嫁而真兒死甯氏年十六聞訃哭
甚哀既而謂父母曰古云烈女不更二夫吾雖未與之醮
然媒妁聘幣父母之命皆已定矣今不幸而死其父母老
無所依吾豈忍背之操他人家箕箒邪遂請往夫家侍養
舅姑父母初未之許甯請益堅卒許之甯至其家哭臨葬
祭無違禮執婦道甚恭織紵以供甘旨如是者凡五十二
年事聞詔旌表其門曰貞節

詩 已成媒娉有歸期不幸夫亡未醮時何忍背之辭甚
切始終喪祭禮無虧 五十餘年奉舅姑平生志節竟
無渝盛朝旌表褒嘉至千載貞名孰與俱

이시합호리라
공신하로왕
지비가미유기
와장귀두어어던
려구인사모리
대그저지비닐
동신줄업스
듣조랑잇새
실내옷마라니
틀러나와종
왕이후에소근
장사도미들거

彌妻啖草 百濟



彌妻圖

彌妻

彌妻

공야남리공비
 무리고겨지불
 쉼려커시불
 서일코흔잠모
 올며왕심들
 이썬커니와오
 큰시디르나들
 왕이고디드르코
 도망호여강애
 큰블리자우
 다돈거늘타천
 신들만나니아
 드히를파머고
 다응로가니라

都彌妻。美麗亦有節行。蓋婁王聞之。語都彌曰。婦人雖貞
 在幽昏處。誘以巧言。則動心矣。都彌曰。若臣妻雖死無貳。
 王欲試之。留都彌以事。使一近臣假王衣服。夜抵其家。謂
 其婦曰。我聞爾好。與都彌博得之。來日入爾為宮人。將亂
 之。婦曰。本無妄語。吾敢不順。請大王先入室。吾更衣而進。
 退飾一婢薦之。王後知見欺。怒甚。誣都彌以罪。矐兩眸子。
 置船泛河。遂引其婦。強欲淫之。婦曰。今良人已失。獨身不
 能自持。况為王御。豈敢相違。今有所避。請俟他日。王信而
 許之。婦便逃至江口。不能渡。呼天慟哭。忽見舟至。乘到泉
 城島。遇其夫未死。掘啖草根。遂與同至高勾麗。終於羈旅。
 合。縱備宮人。矢靡他。詭言逃走出重闔。泣涕漣洏。傍
 水濱。天地神明皆佑助。泉城島上見良人。

집걸부초시
 식네흔나하
 기세잇셔니
 새늘도죽돌
 시주식돌안
 새늘도죽기
 로락ㅎ다가
 싸여저린대
 거슬며구지
 가지어니도
 고사로미출
 아니ㅎ라ㅎ
 치디아니커
 고두주식을
 재아기여스
 감겨뒤셔
 아기노기여
 흘러이베드

崔氏奮罵高麗



주그니라후
 六와늘은은
 烈婦실명

烈婦崔氏靈巖士人仁祐女也適晉州戶長鄭滿生子
 四人其季在襁褓洪武己未倭賊寇晉闔境奔竄時滿因
 事如京賊闖入里間崔年方三十餘且有姿色抱携諸息
 走避山中賊四出驅掠遇崔露刃以脅崔抱樹而拒奮罵
 曰死等爾汚賊以生無寧死義罵不絕口賊遂害之斃於
 樹下賊擄子息以去第三兒習甫六歲啼踴屍側襁褓兒
 猶匍匐就乳血淋漓入口尋亦斃焉後十年己巳都觀察
 使張夏以聞乃命旌門蠲習吏役

詩 良心上計赴王京倭寇搶攘陷邑城汚賊幸生寧死
 義中心取舍已分明賊勢縱橫闔郡驚携兒被擄若
 為情可憐抱樹捐生處風響依稀罵賊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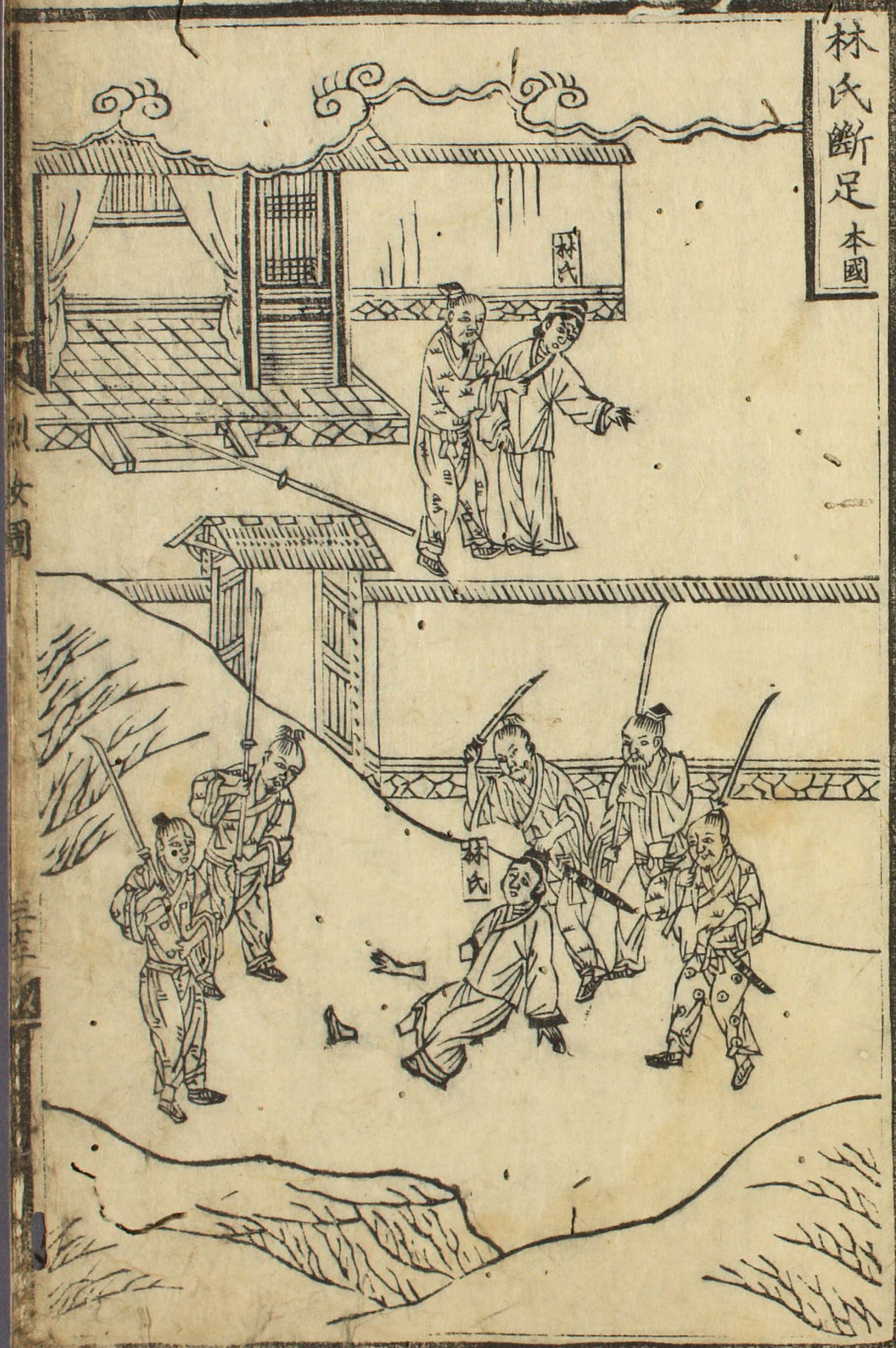
진스비똥
 니동교의
 비이름잡
 스이예예
 늘렐취
 에노코강
 도죽기할
 오면살오
 도라보며
 리아니주
 를살로가
 게늘살마
 이란판원
 흥문세라

烈婦入江高廉



八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林氏斷足 本國



烈婦。京山人。進士裴中善女也。既笄。歸士族李東郊善治
 內事。洪武庚申。倭賊逼京山。闔境擾攘。無敢禦者。東郊時
 赴合浦帥幕。未還。賊騎突入。烈婦所居。里烈婦抱乳子走。
 賊追之。及江。江水方漲。烈婦度不能脫。置乳子岸上。走入
 江。賊持滿注矢擬之。曰。而來免而死。烈婦顧見賊。罵曰。何
 不速殺我。我豈污賊者邪。賊發矢中肩。再發再中。遂歿於
 江中。體覆使趙浚。上其事。旌表里門。

詩

島夷來逼孰能當。闔境蒼皇走且僵。忍見乳兒呱岸
 上。自知難脫赴滄浪。倭寇由来性不仁。那知烈婦行
 真純。灘聲千載猶悲咽。到此無人不愴神。

군마기갈저
 리도호니박
 야포남시
 고지비드리
 등애놀라운
 이다머리를
 김시흔자내
 서남지느르
 나모활들르
 가원소노로
 소노로버물
 은호야버미
 새늘김시닐
 남진을물로
 남호단
 라남진의괴
 자남지느리
 나이튼남아



金氏撲虎 本圖

林氏完山府儒士拒之女也。適知樂安郡事崔克孚。倭氣
 本府。林被執。賊欲汙之。林固拒。賊斷一臂。又斷一足。猶不
 屈被害。

詩 林氏完山禮義家。倭奴突入肆兵戈。兇渠白刃焉能
 挽。之死心堅矢靡他。貞烈高風舉世驚。臨危捨命不
 偷生。一身取舍分明甚。義重方知死亦輕。

그 값마미비
시거늘김시
들오나닐오
싱이내어
구노다하야
비남글너흘
이우니라

金氏安東人。適散負俞天桂。洪武辛巳天桂當行戍。謂其妻曰。今日吉。吾將出宿於外。其妻曰。吾亦出宿矣。遂入室裝糧。夜半忽有人驚呼聲。婢僕皆縮頸。金挺身出。虎已攫夫去。金把木弓。叫呼而前。左手執夫。右手撲虎。幾至六十步。許。虎委之而止。金曰。爾既攫我夫。欲并取我耶。虎乃去。夫氣絕。金負而歸家。黎明夫甦。其夜虎又至。唐突大吼。金又開門。荷杖語虎曰。爾亦含靈之物。何若是之甚乎。虎齧舍傍梨樹而去。樹乃枯。

詩 慙歎入室為裝糧。出戍良人宿舍傍。夜半忽為虺席攫。追奔手撲併無傷。大吼重來最可驚。開門荷杖語丁寧。縱然齧樹終無害。始信毛虫亦性靈。

물게는려디
주거를매어
나

소하고더욱
밤아니막고
부근알외어
고을외외어
해로오료호
슬퍼아니막
막고저시브
당이병이로
사흔재야주
히러니부외
진과흔디무

金氏同定本國



金氏豐山人。適李樞。樞墜。道斃。其備昇屍歸。金號。踊抱屍。經三日。夜及殯。益自哀。慟踰月。不食。唯啜水而已。父母諭之曰。食而哭。於義何害。金曰。非哀而不食。自不思食耳。應是疾也。至五十三日而死。年二十。父母憐之。同穴而窆。

詩 夫因馬蹶。忽昇屍。擗踊號。眇日抱持。不食數旬。唯啜水。竟捐軀。命事堪悲。性善由來。見四端。久能踐履。最為難。豐山一女。知偕死。同穴千秋。得所安。

三網行實烈女圖終

